

어린이 책꽂이

▲한권으로 보는 그림 한국사 백과
=동화를 읽거나
만화를 보는 것
처럼 우리 역사
를 쉽고 재미있
게 다루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대
한민국까지 우리

나라 5천년 역사를 13개의 시대로 분
류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소개했다.
<진선아이·1만9천원>

▲딸은 좋다=엄마와 딸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같음, 그리
고 아픔의 감정을 드러낸 책이다.
장면 장면의 상황
과 배경, 소품, 분
위기 등 글과 그
림이 딸과 엄마의 감정선을 잘 표현하
고 있다. <한울림 어린이·1만원>

▲천재를 뛰어넘은 77인의 연습벌레
들=천재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이 어떻게 존경받는 인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들만의 숨겨진
노력과 삶의 지혜를 소개한다. 세계적인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빌 게이츠,
데일 카네기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人们的 성공비결을 만날 수 있다.
<디산 어린이·9천원>

▲맹꽁이 서당(제15권)=공부하기
싫어하는 맹꽁이 서당 학동들과
도망다니는 학동들을 잡아 어
떻게든 공부를 시키려는 훈장님
의 모습이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번 책에는 고려시
대 강종에서 마지막 왕인 공양왕까지
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모로코의 이야기꾼=북 아프리카
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모로코
를 배경으로 전통시장인 수크에
서 이야기를 팔아 생계를 꾸려
가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하루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따스한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의 새벽
모습을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실
적으로 그려냈다. <미래 B&B·9천원>

독선·아집으로 나라 망친 오만한 통치자들의 역사

바보들의 행진 바버라 터치먼 지음



'이 괴물 안에 그리스인이 숨어 있든가, 무언가 수상
쩍은 전쟁 도구, 이 도시를 습격하려는 스파이나 기계
가 있을 것이오.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를 믿지 마오.
그리스인은 무서운 사람들이오, 선물을 가져올 때조차
믿어서는 안된다.'

아폴론 신전의 신관 라오콘은 괴롭는 목소리로 '경고'를 하지만 어리석은 트로이 위정자들은 목마를 끌어들여 멸망을 자초한다. 그의 경고가 아니었어도 '트로이 목마'가 '재앙'이 될 거라는 정황은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지만 프리아 모스왕은 그것들을 무시한다.

통치자의 '선택'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어렵게도 국민들의 생과 사를 쥐고 있는 그들의 선택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독선과 아집, 지나친 애심, 무능과 타락으로 인해 '불합리할 때'가 훨씬 많다. 특히 오만을 유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출몰한다는 게 문제다.

풀리처상 수상자인 바버라 터치먼은 '독선과 아집'으로 나라를 망친 통치자들을 '바보'라 명명했다. 그가 꿔낸 '바보들의 행진-3천년을 이어온 오만한 통치자들의 역사'는 고대 트로이부터 현대 베트남 전쟁까지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와 국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주제한 책이다.

베트남 전쟁을 불러싼 미국 대통령들의 행보는 진정한 '바보들의 행진'이다. 베트남 전쟁은 첫 발을 담근 아이젠 하워에서 시작된 행진은 케네디와 존슨은 거쳐 닉슨으로 이어진다.

케네디는 '대통령 재선'이라는 개인적인 욕망을 개입시킴으로써 베트남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가 암살된 후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존슨은 '전쟁에서 패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기 싫다'는 생각에 매몰돼 '가망 없다'는 고서가 수차례 올라왔음에도 점점 전쟁의 광기로 빠져들었다.

그밖에도 책에는 미국 독립을 불러싼 대영제국의 잘못된 선택, 개혁 보다는 타락을 택한 르네상스 시대의 윌리우스 2세, 클레멘스 7세 등이 담겨 있다.

미국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이렇게 탄식했다. '다른 모든 과학은 진보하고 있는데도 정치만은 옛날 그대로다. 지금도 3천~4천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의 발언이 있은지 또 다시 200여년이 지난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들 부시의 독선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갔고 역대 한국의 위정자들 역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인류에게는 실제로 불행하게도 통치자들의 독선과 아집은 '큰질기게' 되풀이되는 네버엔딩 스토리인 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인 트로이의 위정자들은 독선과 아집, 무지로 인해 국가를 나락으로 빠트렸다.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트로이의 목마를 소재로 한 도자기의 테라코타.

탐욕을 버리면 차 향기가 난다

차 한잔의 깨달음 한승원 지음



차(茶)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소설가 한승원
씨가 에세이집 '차 한 잔의 깨달음'을 출간했다.

한씨는 10여년 전 고향 장흥에 짐필실 '해산토굴(海
山土窟)'을 마련하고 아내와 함께 뒤편 언덕에 죽로차
밭을 일궜 정도로 차를 좋아한다. 책에는 차와 깨달음에 대한 한씨의 이야기,
직접 찍은 연꽃과 짐필실 사진 등이 실려 있다.

저자는 스스로 책을 "차"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선, 깨달음'에 이르는 '정름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넘새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것을 가름 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 혹은 미망이다."

차와 함께 생활하면서 얻은 저자의 깨달음이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문체와
사색으로 다시 태어난다. 저자는 스스로 '차 교과서'로 삼았던 초의 스님의
'동다송'과 '다신전'을 직접 번역, 해설을 곁들여 부록으로 실었다.

<김성연기자 camus@kwangju.co.kr>

'오아시스路'서 동서간 문물교류 흔적찾기

실크로드 문명기행 정수일 지음



'깐수' 사건의 주인공 정수일씨가 '실크로드 문명기
행'을 꾀했다.

문명교류사가인 저자가 '한겨레 실크로드 답사단'에
섞여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25일까지 40일 동안 서울
을 출발, 이스탄불에 이르는 실크로드 3대 간선 '오아시스로(路)'를 밟고 써
내려간 기록이다. 글들은 지난 1년 동안 한겨레신문에 '실크로드의 재발견'
이란 이름으로 연재됐다.

동행한 사진기자들의 컬러 사진 200여장도 불거진다. 저자는 "길 위에서 '세
계 속의 한국'을 찾으려 했고, 동서 간에 오간 숱한 문물의 교류 흔적을 더듬
으려 했으며, 인류가 창출한 위대한 문명들의 슬기를 체험하려 했다"고 밝히
고 있다. 저자는 오아시스로의 요지임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밟을 수
없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실크로드 3대 간선의 나머지 두 길인 초원로와
해로도 밟아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출판·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프랑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별세 3년 반이나 되었구나. 참 세월도 빠르네!'

'청년글방'의 세미나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몇그제
같은데, 꽤 오랜 시간 버티고 있는 샘이다. 문화이론과 문화
정책, 탈식민주의에 대한 탐색 등을 주로 하다가 이제는 동
서양 미술을 편력하고 있다. 쉽증이 날만도 한데, '워낙 모르
는 게 많아보니' 갈수록 재미가 더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만 너무 편식하는 것 같아,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에 대한 세미나 팀을 하나 더 꾸려 봤다. 세상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싶어서였다.

지난주에 우리는 프랑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을 독
파했다. 90년대 초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시의성은 떨어지
지만, 신자유주의의 '고전'이라는 유명세 때문에 이 책을 두
번째 텍스트로 선택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난 반응도 가지
가지였다.

주로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그러나 책의 내용이 현재
의 여러 현상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에서 플랫폼은, 인간의 본성은 '욕망·이성·패기'로
구성돼 있다고 말한다. '욕망'은 부족한 것을 구하도록 충동
하고 '이성'은 욕망 충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게 하니,

인류, 역사에서 살아남으려면

'패기'는 자존심을 느끼는 속성으
로 자기에게 부여한 가치를 인정받
고 싶어 하는 속성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욕망과 이성으로 이
루어진 경제를 토대로 인류의 역사
를 분석한데 비해, 해겔은 '인정받
고 싶어 하는 감정'이 역사과정 전
체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
했다.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은 인간 본성의 욕망과 이성이라
는 부분만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인정받
고 싶어 하는 '패기'라는 본성까지 포함하는 역사 해석이 완
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체제만이 인류 역사
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오래된 체
제는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고, 따라서 역
사는 종말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가슴이 없는 인간', 너지분한 욕
구만 채워가는 눈치 빠른 인간, 패기와 부족한 인간을 낳았
는데, 이 최후의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사
라져 어떠한 업적도 이룰 수 없는 미덕 없는 인간이라는 것
이다. 저자는 니체의 '초인'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역
사의 종말에 다른 최후의 인간은 그다지 바탕직한 모습은
아닌 듯하다.

내일 모래면 60이 되는 나 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면, 세상
을 관조하거나 아니면 영혼의 구원 같은 근본적 물을 때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법인데, 나는 어
찌자고 자꾸 현상에 매몰되어 나이 값
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나'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더 관심
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김 상 윤

<지역문화교류회원재단 상임이사>

